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허 선사(6)

물되, (뱀을 보고) 이게 뭐니까?

답하되, 가만히 두어라 실컷 놀다 가게

경허 스님이 서산 천장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여름밤이었다. 만공 스님이 큰방에 불이 있어 경허 스님이 누워 계시는 그 앞으로 호롱 불을 들고 지나가다 얼떨결에 보니, 스님의 배 위에 걸고 시꺼먼 뱀이 혀를 걸쳐져 있었다.

만공 스님이 깜짝 놀라, "스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 경허 스님이 "가만히 두어라. 실컷 놀다 가게." 하고는 놀라지도 않고, 쫓지도 않은 채 태연히 누워있을 뿐이었다.

얼마 후 뱀이 숲속으로 돌아간 뒤, 선사의 법문이 이어졌다. "이런 데에 마음이 조금도 동요될 것이 없어야 자기 공부에 정진해야 하느니라."

확실히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두려움에서 해탈한 대장부의 대무심(大無心) 경계를 엿볼 수 있는 선화(禪話)이다.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깊은 무심의 경지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와 같겠는가.

선 수행은 무심을 체득하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심의 도리를 직관적으로 통달한 뒤, 생활 속에서 무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대주 선사는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 해탈'이라고 하였다.

가지가지의 번뇌망상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면, 일체의 망상을 떠나 사는 이를 부처라고 한다. 모든 망상을 떠났으므로 망상이 없기에, 이것을 무심(無心)이라고 하고 무념(無念)이라고도 한다. 물론 참다운 무심은 오직 제8 아뢰야식의 근본무명까지 완전히 끊은 구경각(究竟覺) 즉 묘각(妙覺)만이 참다운 무심이다.

육조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無念)을 세우 종(宗)을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體)를 삼고, 무주(無住)로 본(本)을 삼았다"라고 하면서 무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대상에 마음이 몰리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無念)이니, 제 생각에 항상 모든 대상을 떠나서 대상에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아주 없애 버리면, 한 생각이 끊어지면서 곧 죽어 떠난 곳에 태어나니, 이것은 큰 착오이므로 배움은 사람은 배심해야 한다."

이처럼 무심은 바와나 고목과 같은 아무 생각이 없이 흐리멍덩한 무기(無記)의 상태가 아니다. 본래부터 청을 얻어 생사의 두려움에서 해탈한 대장부의 대무심(大無心) 경계를 엿볼 수 있는 선화(禪話)이다.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깊은 무심의 경지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와 같겠는가.

선 수행은 무심을 체득하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심의 도리를 직관적으로 통달한 뒤, 생활 속에서 무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대주 선사는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 해탈'이라고 하였다.

가지가지의 번뇌망상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면, 일체의 망상을 떠나 사는 이를 부처라고 한다. 모든 망상을 떠났으므로 망상이 없기에, 이것을 무심(無心)이라고 하고 무념(無念)이라고도 한다. 물론 참다운 무심은 오직 제8 아뢰야식의 근본무명까지 완전히 끊은 구경각(究竟覺) 즉 묘각(妙覺)만이 참다운 무심이다.

물론 선(禪)에서는 '무심에도 한결이 있고, 혜(慧)라는 것은 대지혜 광명이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혜 등지(定慧等持)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선(禪)에서는 '무심에도 한결이 있고, 혜(慧)라는 것은 대지혜 광명이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혜 등지(定慧等持)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심은 아무생각 없음 아니라 망상 다 떨어진 지혜의 자리

# 자비명상·보살행으로 '지금 여기' 깨달음 강조

## '킬링필드'에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맞서 "집착 내려놓고 마음의 주인 되라" 가르쳐

3월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레버데이트의 콜리 디킨슨 병원에서 원직한 마하 고사나다 스님(사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킬링필드(Killing Field)의 대재앙을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맞선 캄보디아 평화운동의 상징이자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스님의 큰 원력(願力)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치열한 삶 자체가 수행'이요, '전쟁터가 바로 법당'임을 일깨운 지구촌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은 사람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능케 한 자비명상과 보살행, '지금 여기'에서의 깨달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비행의 원천인 천진무구(天真無垢)의 경지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지만, 국내에 유일하게 번역된 스님의 법문집 <한 걸음 한 걸음 (Step by Step)>(무한 재)과 <과연 누가 적인가(Who is the Enemy)?> <평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Peace is our common goal)> 등을 중심으로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을 되새겨 본다.

**# 마음의 주인이 되라**  
스님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게.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에 통달할 것일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요한 법문'으로 강조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이는 일체 선사의 '머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다(隨處作主 立處皆眞)'는 가르침과 상통한다.

**#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스님에 따르면 '보리(菩提)는 깨어남, 곧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如實知見)'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에 대해 알아차릴 때 화는 모든 힘을 상실하며, 화는 곧 자비심으로 거둔다. "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다'라고 할 만한 알맹이 따위는 없다. 화는 언제나 사소한 것들에 의해 촉발된다. 화를 내는 나는 어디에도 없다. 불멸의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가끔씩 화가 나 온몸이 달아오르면 바로 자비를 떠올려라. 금방 열기가 식을 것이다."

**# 진리는 항상 눈앞에 있다**  
스님은 "불법은 지금 코앞에 있다. 그것은 언제나 있지 아니 한 곳이 없다. 불법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 결과는 단박에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는 선종에서 흔히 말하는 '도무소부재(道無所不在: 도가 없는 곳이 없다)'나 '촉사이진(觸事而眞: 손에 닿는 것 그대로가 진실)', '촉목보리(觸目菩提: 보이는 그대로가 깨달음)'와 똑같은 의미이다. 때문에 스님은 "행복의 비밀은 눈앞의 현실에 온통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고 말한다.

**# 양면은 초월한 중도의 평정**  
"평화에 이르는 길의 이름은 중도(中道)이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대립과 극단을 초월한다. 그것은 간혹 평정(平靜)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평정은 어떤 극단과

도 조화를 이룬다. 평정이란 모든 다름이 가라앉은 것을 뜻한다." 스님은 '중도는 평화에 이르는 길인 동시에 평화 그 자체'라고 말한다.

**# 내려놓기**  
마음 가운데 집착이 있는 한, 고통은 필연적이다. 고통은 마음에 자유와 평화 가 된다. 집착의 이름은 탐욕, 분노, 질투, 갈망 등 108가지나 된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떠나가도록 놓아두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른바 '고통스럽게 잡고 있다가 행복하게 떠나라'는 그것이다. 선(禪)에서 강조하는 방하착(放下着)과 같다.

**#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기**

"감정을 먼저 다스리지 않는 한, 거기에 휘둘리고 만다.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사물의 실상은 절로 드러난다. 명상은 쾌락과 불쾌와 그 중립적인 감정을 지혜로 변화시켜 준다. 명상에서 멀어지면 좋으니 나쁘니 하는 분별로 치달기 마련이다." 취사선택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경계에 매몰되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는 선(禪)의 원리와 같다. 스님은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것은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행복이다"고 말한다.

**# 지금 여기가 열반이다**  
열반을 저 멀리 밖에서 찾는 이들을 향해, 스님은 "지금 여기가 열반이다"고 일깨운다. 열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열반은 고통의 소멸을 뜻한다. 그것은 일체의 분별을 초월하기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며, 원인과 결과와도 상관없이 있다고 한다. 스님은 "열반에 이르면 모든 집착이 사라지는데, 매 순간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순결하다. 업도 소멸된다"고 말한다. 스님은 "고



통 없이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살라"고 당부한다.

**# 자비 명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자신의 생각을 잘 살피지니, 만유에 대한 존경으로 빛은 사랑, 그로부터 피어나게 하십시오." 스님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온 세상이 아닌 계산 없는 부처님을 받드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비명상에서 주목(儆)은: 고통한 침묵은 모든 행동의 원칙이다. 나아가 평화 만들기에는 명상과 결합, 지혜가 필요하다. 중도의 길, 대립을 벗어난 길, 집착을 벗어난 길인 평화의 성취는 지혜와 자비의 완전한 조화를 뜻한다.

**# 걸음 걸음이 명상이자 기도**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음 걸음이 그대로 명상이자 기도이다." 스님에 따르면 명상수행은 '하느님의 길'이다. 언제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바로 이번 걸음에 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c5@hanmail.net

### 수행계시판

#### 제2기 100일 출가생 모집

정토회는 제2기 100일 출가생을 모집한다.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출가는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등을 통해 자기변화 훈련과 공동체 생활 등을 체험하게 된다. (02) 587-8990

#### 염불수행 단기출가

염불수행은 4월 9-22일 '정토선 염불수행 체험' 단기출가를 실시한다. 4월 9-15일 1차, 16-22일 2차로 운영. 선

용 스님의 법문과 오우 불식, 영불, 묵언 정진, 반우공양, 여불, 철야정진 등으로 진행. (043) 878-3366

#### 위빠사나 집중수행

법안사는 4월 19-23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김영권 법사가 마하시 방법을 기초로 부처님 경전의 표적 관찰법을 병행해 사려려 가운데 법행처 중 오온과 12연기 관찰법으로 지도한다. (031) 574-5585

##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 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다퉈 화를 미리 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삼고금강저 제작 가격 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승리의 선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향상품에나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별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벨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실용신안 등록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데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흰 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소나노 지갑



여성용소나노 지갑

## 옴마니반메흠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모통하게 풀린다는 신묘 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원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모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던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원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허되지 않게 하는 팔십삼보병관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금소가죽에 金·銀·나노·처리 까지만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 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올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 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퉈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다퉈 화를 미리 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양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